

'채식주의자'로 침체 출판시장 '숨통'

문학계에 혼풍이 불어오고 있다. 작가 한강이 연작소설 '채식주의자'로 세계 3대 문학상인 '맨부커상'의 인터내셔널 부문을 받은 덕분이다. 한 작가는 단숨에 스타 작가 반열에 올랐고, 덩달아 문학계도 들썩이고 있다.

지나해에만해도 표절, 문단 권력 등의 논란으로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한 작가의 절묘한 구원 등판이 숨통을 틔워주고 있다.

○베스트셀러 차트, 한국 소설 장악
한국출판인회의가 11일부터 19일까지 집계한 5월3주 베스트셀러 차트에서 '채식주의자'가 지난주보다 14계단 뛰어올라 2위를 차지했다.

교보문고·반디앤투니스·영풍문고 등 대형서점 3개사, 예스24·알라딘·인터파크도서 등 주요 인터넷서점 3개사와 수원의 경기서적 등 지역서점 13개사의 판매량을 합친 순위다.

맨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 후보로 오른 뒤 판매량이 늘어 20위권에 진입했다. 한국 시간으로 17일 수상 발표 이후 판매량이 급등, 순위가 치고 올라왔다. 다음 주 차트에서는 1위가 확실시된다.

2007년 출판사 창비를 통해 출간된 '채식주의자'는 2007년 출간 이후 맨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수상 전까지 총 1만부 가량이 팔렸다. 수상 직후 서점들의 1차 주문 합계가 25만부 정도다.



베스트셀러 차트 한국 소설 장악·판매량 급등 제2의 한강으로 황석영·이승우·신경숙 등 주목

한 작가의 또 다른 대표작인 '소년이 온다'(2014·창비)도 15위로 진입했다. 예약 판매만으로 순위권에 진입한 흥행작가 정유정의 신작 '종의 기원'은 출간 즉시 5위에 걸렸다.

한 작가가 맨부커상을 수상한 소식이 알려진 당일인 17일에는 한 작가의 소설 외에도 한국 소설들이 좋은 성적을 거뒀다.

예스24에 따르면, 당일 한국소설의 판매량은 전날인 16일보다 약 8배 증가했다. '채식주의자'를 제외하고도 약 5배 가량 많이 판매됐다. 작가 이기호의 신작 '엘만해선 아무렇지 않다', 문학동네 2016 제7회 젊은작가상 수상작품집, 최정화의 단편소설을 모아놓은 첫 소설집 '저키히 내성적인' 등이 주목 받았다.

당분간 한국 소설의 인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숨의 '1의 운동화'를 비롯해 은희경, 김중혁 등 인기 작가들의 신작이 연이어 발표되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작년 국내 예술인이 예술활동을 통해 번 1인 당 평균 수입은 1255만원이었다. 특히 문인은 214만원에 불과했다.

문학계 관계자는 "한강 작가의 이번 수상으로 문학계의 판을 키우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지만 지극히 이례적인 경우"라며 "시류 편승보다는 문학 독자층을 차근차근 탄탄히 다져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2의 한강은?

문학계는 한 작가의 '맨부커상'의 인터내셔널 부문 수상 이후 해외에서 통할 또 다른 스타 작가 찾기에 혈안이 됐다. 작가 황석영, 이승우, 신경숙, 김영하, 황석미, 은희경 등은 한 작가에 앞서 일찌감치 주목 받은 이들이다.

특히 지난 3월 '2016 파리도서전'에서도 확인됐듯, 이승우 작가의 인기가 높은 편이다. 지난 2000년 이 작가는 '생의 이면'으로 공쿠르상에 버금가는 권위 있는 상으로 통하는 프랑스의 문학상 '페미나상'의 외국어소설 부문 최종심에 오르기도 했다. 꾸준한 노벨문학상 후보로 거명되는 한국계 미국 작가 소설가 이창래도 한국에서 주목하는 작가다. /이성주 기자



무주산골영화제 '산골 토크와 관객과의 대화'

제4회 무주산골영화제는 영화제 기간(6월 2일~6일) 상영작 감독 및 배우, 영화전문가들과 함께 영화를 매개로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프로그램은 '산골 토크와 관객과의 대화'로 꾸며지며, 82편의 상영작 중 총 25편의 영화 상영 후에 이루어진다.

산골토크는 영화전문가와 해당 영화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가지는 시간으로 총 8회에 걸쳐 진행된다.

6월 3일에는 <해안가의 여령>후 이해영 영화감독과 이경미 영화감독, <다가오는 것들>후 백은하 영화전문가이자 평론가, <한나 아인트>후 하승우 정치학 박사가 이어 4일에는 <순응자>후 정한석 영화평론가, <더 디너>후 한국영상영화치료학회, <아비정전>후 김형석 영화평론가가 5일에는 <벨벳 골드마인>(헤이마)후 김작가 음악평론가가 관객과 소통한다.

이와 함께 감독 및 배우를 만날 수 있는 관객과의 대화와 무대인사도 총 17회에 걸쳐 진행된다.

6월 3일 관객과의 대화에는 <스탈라워>후 박석영 감독, <카툰롤>후 류현 감독과 박철민 배우, <죽구왕>후 황미영 배우, <최악의 여자>후 김종관 감독, <카모메 식당>후 오기가 미 나오 감독이 이어 4일에는 <소년,달리다>후 강석필 감독, <사월의 끝>후 김광복 감독과 배우 박지수·이빛나, <우리연애의 이력>후 배우 신민철·장혁진·이지훈·남태우, <델타보이즈>후 감독 고봉수와 배우 백승환·신민재·윤지혜·김종길, <시선 사이> 후 신연식 감독, <혼자>후 박홍민 감독이 5일에는 <공부의 나라>후 최우영 감독, <어린이 정경>후 김이창 감독, <프레스>후 감독 최정민과 배우 진용욱이 참석해 특별한 만남을 갖는다. /정해은 기자

'우리는 꿈을 꾸는 청소년'

무주 청소년 문화축제 성황

제2회 무주군 청소년 문화축제 "꿈"이 지난 20일 무주읍 등나무운동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창의적인 청소년 활동과 숨은 끼를 발산할 수 있는 문화공연의 장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무주군과 무주교육지원청이 주최하고 법무부 법사랑위원 무주지구협의회와 무주청소년수련관, 무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주관한 가운데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과 자원봉사자 등 1천 7백여 명이 함께했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진로 직업체험 박람회, 동아리발표회, 생백합 청소년가요제 순으로 진행됐다.

기념식에서 황정수 군수는 "여러분의 관심을 채우고 여러분이 끼를 발산할 이 자리가 꿈을 그리는 기회, 미래를 설계해보는 시간,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열정을 짝 띄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옆에 있는 친구 손잡고, 앞서가는 친구 응원해주며, 뒤쳐져 있는 친구 격려도 해주며 우리 그렇게 같이 가보자"고 말했다.

진로체험 박람회(38개 부스 운영)에는 직업군에 무진장소방서와 덕유산국립공원, 무주문화원, 무주특수교육지원센터, 무주경찰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중앙회 등 17개 기관이 참여해 다양한 직업에



제2회 무주군 청소년 문화축제 '꿈'이 지난 20일 무주읍 등나무운동장에서 열려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과 자원봉사자 등 1천 7백여 명이 함께했다.

대한 이해와 체험을 도왔으며, 진학체험관에 전북대학교와 전주대학교, 원광대학교, 건양대학교, 대전대학교, 전남대학교, 우석대학교, 건양사이버대학교 등 8개 대학 11개 학과가 참여해 관련 학과 등 미래 직업 전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호응을 얻었다.

학생들은 "직업체험도 할 수 있고 대학 정보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함께 마련돼 더 좋았던 것 같다"며 "체험관에서 얻은

생생한 정보들과 신나는 무대에서 얻은 용기를 바탕으로 현재를 살피고 미래를 설계해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8세~19세 청소년)들이 경합을 벌인 동아리발표회에는 10개 팀이 참가했으며, 14~19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생백합청소년가요제에는 11개 팀 14명이 참가해 노래와 춤 실력을 겨뤘다.

/무주=전문선 기자



'연잎이야기' 28일까지 담양서

서남대학교 김광길 교수(디자인학과)의 제7회 "연잎이야기"이 오는 28일까지 전남 담양에 소재한 공예전문 미술관 보임원에서 기획초대전으로 열린다. 이번 기획 초대전은 '봄의 향연'이라는 주제로 지난달 5일 개막하였다.

연잎 자체의 색이 담고 있는 소박하고 순수함을 자연스레 표현해온 김 교수의 연잎들은 세월의 시간들을 달리며 우리들의 현실과 마음으로까지 오버랩시켜 무한 세계 속으로 빠져들게 한다.특히 봄에 소생하는 생명의 근원을 살리기 위해 두세 가지 색을 연잎 표면에 흘려보내 봄에 역동감을 만들어냈다.

이러다든 연잎의 어린색 표현을 위해 이 장이라는 색 슬립을 사용하여 파스텔톤 처리하였고, 無軸 소성했다는 설명이다.

서정성 교수(서남대)는 이번 전시에 대해 "연잎에 빗방울이 떨어지면 일렁이다 속이 들여다보인 물방울은 가장자리를 타고 미끄러지듯 흘러내린다면서 봄의 향연, 연잎 이야기는 흐르는 흙물이 시간을 머금고 신비스런 몸으로 세상에 나온다"고 평했다.김광길 교수는 전남 강진 출생으로 개인전 7회와 국내외 단체전에 다수 출품했다. /남영=유영철 기자



자화상전

서신갤러리 자화상전 내달 14일까지

'자화상전 17'이 내달 14일까지 서신갤러리 전시장에서 열린다. 서신갤러리 대표 기획전 '자화상전'은 지난 16년 간 2천 5백여 점의 작품으로 동시대의 얼굴을 생생하게 기록해 왔다. 올해는 작가 8명, 그리고 군산대 예원예대 원광대 전북대 등 네 개 대학 미술학도 82명이 참여해 90여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관객들은 화가의 자화상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대와 그에 적응해가는 사람들의 모습 등 다양한 세상의 면면을 엿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수많은 얼굴 속에서 오늘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성찰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작가들은 "관객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많은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더불어 "낯선 이의 매력을 발견하고, 타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눈을 미처주려는 여유와 호기심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정해은 기자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2016년 5월 23일)

<p>▷쥐띠 48년생: 건강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운이다. 60년생: 세밀함을 요하는 일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좋은 결과를 맞을 수 있을 것이다. 72년생: 이성을 주의하고 행동을 조심하라. 84년생: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른다.</p>	<p>▷소띠 49년생: 타인과 상의하고 결정하라. 61년생: 정신적으로 힘든 운이다. 73년생: 인덕이 따르는 운이니 어려움이 있어도 귀인이 도움을 줄 것이다. 85년생: 동기기에 화합하기 좋은 운이니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협동하라.</p>	<p>▷호랑이띠 50년생: 중요한 약속이나 결정은 다음으로 미뤄라. 62년생: 다른 사람과 시비가 생길 수 있는 운. 74년생: 자신보다 힘든 상황의 사람에게 베풀면 덕이 돌아오니 도움을 주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86년생: 다른 사람과 관계가 틀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p>	<p>▷토끼띠 51년생: 상황에 비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는 운이다. 63년생: 예상보다 상황이 쉽게 풀리니 기쁨이 있는 운. 75년생: 자신의 속마음을 노출시키지 마라. 87년생: 타인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라.</p>
<p>▷용띠 52년생: 말을 조심해서 해야 하는 운이다. 64년생: 금전손실이 따르는 운. 76년생: 힘으로 인하여 좋은 일이 생기는 운이다. 88년생: 작은 일은 좋은 결실을 볼 수 있으나 분수위의 일은 불리하니 주의하라.</p>	<p>▷뱀띠 53년생: 자비로운 마음으로 행하면 좋은 결실이 따른다. 65년생: 욕심을 버리고 근일은 삼가라. 77년생: 평소 소울했던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운. 89년생: 다른 사람으로부터 억압을 입어 생기나 악의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 상충적인 이유에서이니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p>	<p>▷말띠 54년생: 지강은 열고 말은 줄이라. 66년생: 뒷사람의 덕을 볼 수 있는 운. 78년생: 건강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운이다. 90년생: 평소 약속했던 일이라 할지라도 실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세심한 검토가 필요 운이다.</p>	<p>▷양띠 55년생: 한쪽에서 막으면 다른 곳에 지출할 일이 발생하니 먼저 배후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67년생: 다른 사람의 일에 나서지 마라. 79년생: 주변사람들만 인해 마음상할 일이 발생할 수 있다. 91년생: 과식을 삼가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섭취하라.</p>
<p>▷원숭이띠 56년생: 좋은 문서가 들어오는 운. 68년생: 지나친 근심은 불필요한 운이다. 80년생: 어려움이 있다면 이성의 도움을 받아라. 92년생: 고고자 하는 일에 구설수와 시비가 따르니 매사 언행에 주의하라.</p>	<p>▷닭띠 57년생: 그동안 베풀었던 덕이 돌아오는 운. 69년생: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라. 81년생: 타이밍과 화합이 중요한 운이다. 93년생: 어려움이 있어도 구인의 도움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운이니 염려하지 마라.</p>	<p>▷개띠 46년생: 문서를 주고 받는 일은 좋다. 58년생: 건강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운이다. 70년생: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아 상황판단능력이 저하되니 중요한 결정은 미루는 것이 좋겠다. 82년생: 무리하게 투지하거나 추진하지 말고 때를 기다려라.</p>	<p>▷돼지띠 47년생: 다른 사람의 일에 나서지 마라. 59년생: 안정적이지 않은 재물의 유동성으로 인해 어려움이 따르니 주의하라. 71년생: 마음을 다스려라. 83년생: 좋은일과 어려운일이 함께 발생한다.</p>